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A Research on User's Awareness of Subject Guide of Korean Modern Literature

홍 현 진(Hyun-Jin Hong)**
노 영 희(Young-hee Noh)***
강 미 희(Mi-Hee Kang)****
정 대 근(Dae-Keun Jeong)****

〈목 차〉

I. 서론	III. 연구방법
II.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논점	1.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1. 한국근대문학의 개념 및 범위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2. 주제가이드의 개념 및 개선점	IV. 연구결과
3.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특성	V.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 과정에서 수행된 것으로, 주제가이드의 개선점과 한국근대문학의 주제 특수성에 기반한 주제접근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 이용자 요구분석이다. 이는 설문으로 수행되었으며, 307명의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해도 및 이용경험은 낮은 반면 이용의향은 매우 높았다. 둘째, 한국근대문학의 생산형태의 중요도는 원자료와 파생자료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자료유형의 중요도는 시와 소설이 높았다. 자료구축은 저자별, 장르별, 시기별, 사조별 구축방법을 선호하며,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주제가이드의 홍보에 대한 동의도가 매우 높았다.

키워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패스파인더,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ABSTRACT

This research perform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subject guide of Korean modern literature is to show subject guide and find improvements and to reflect user's requests regarding subject access too development. Survey was performed on user's awareness and the result from analyzing 307 questionnaires are as follow. Firstly,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experience of subject guide were very low while future intension to utilize the subject guide was very high. Secondly, not only the original materials but also derived materials showed high result regarding the importance of production type of Korean modern literature. Lastl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materials, establishment by writer, genre, time or trend was preferred in overall but difference was shown by group

Keywords: Korean modern literature, Subject guide, Path finder, Subject guide of Korean modern literature

* 이 논문은 2014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학분야 주제가이드 개발 및 구축: 근대문학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jhong@chonnam.ac.kr)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2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mhkang08@hanmail.net) (교신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basicwindy@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5년 9월 2일 •최초심사: 2015년 9월 2일 •게재확정: 2015년 9월 17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381-405,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9.381]

I. 서론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인문학 관련 서적들이 초등학생부터 경영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길위의 인문학, 거리의 인문학, 시민 인문학, 희망 인문학, 비판 인문학, 표현 인문학, 실천 인문학, 사회 인문학, 평화 인문학, 통일 인문학, 생태 인문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송주현, 김소륜 2014, 466-470).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하여 도서관도 예외일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변화를 수용하며 발전한 도서관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와 같은 일회성에서 더 나아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본다. 인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은 문학자료의 수요로 나타날 것이며, 그 중 일부는 도서관의 자료 이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도서관은 문학자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문학자료의 특성 및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하나의 검색도구 내에서도 특정 저자의 군집된 자료제공,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장르별, 시기별, 사조별 자료제공, 요구 수준별 자료제공 등 문학자료의 특성 및 이용자 요구에 따라 차별적 자료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용자 요구에 따라 초보적인 단계부터 전문적인 단계로의 선택적 접근이 가능한 주제가이드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특성과 이용특성을 고려한 주제가이드의 특성은 특히 한국근대문학과 같은 복잡한 구조의 자료제공에 있어서는 더욱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근대문학은 한국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는 한반도가 아닌 만주, 일본 등에서 생산되기도 하였으며, 언어적 측면에서도 순수 한글이 아닌 일본어, 한자 등이 섞여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시기의 생산 환경에 따라 신문지상이나 잡지를 통해 발표됨으로써, 연재형식의 소설, 시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국근대문학의 특성은 여타의 다른 검색시스템에는 반영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주제가이드는 사전의 구축방법에 따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를 개발하였고,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수행된 이용자 요구조사이다. 이는 필요성과 유용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는 주제가이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뿐만 아니라, 한국근대문학이라는 복잡한 구조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한국근대문학은 특정시기(1894년-1945년으로 규정)의 작품이지만, 이 시기의 특정 작품에 대한 후대의 학

위논문 및 비평 등의 파생자료 역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자료의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요구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여 실제 구축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제가이드의 제공과 이용이 부진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 주제가이드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다양한 주제로의 확장 개발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II.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논점

1. 한국근대문학의 개념 및 범위

가. 한국근대문학의 개념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작업은 여전히 학계의 주요 과제라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 연구에서 시대적 특수성 및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있는 한국근대문학의 정의를 본격적으로 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개념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근대문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근대문학의 범위와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논의를 통해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수용하고자 한다.

한국문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한국인이 한국의 문자로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표현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문학의 창작 주체는 한국인이며, 표현 수단은 한국어, 표현 내용은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13).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문학의 일반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근대문학에 적용할 경우 근대의 기점을 1894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해도 정의가 불충분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한글이 공식적인 표기 체계로 선포된 1894년 이후에도 여전히 한글과 한자 혹은 한글과 일본어 등의 이중 언어를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한글로 작성된 작품만을 한국근대문학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언어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한국근대문학의 개념을 한글이 공식 문자체계로 선포된 1894년부터 해방기인 1945년까지 한국인이 한국어를 기본적인 표현수단으로 하여 한국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한 문학적 결과물로 규정한다. 이는 19세기 후반 이후 전통 사회의 붕괴와 함께 새롭게 성립된 제반 문학형태를 한국근대문학의 외연으로 규정한 관련학계의 합의(문화재청 2009, 93)에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한국근대문학의 범위

1) 시대적 범위

한국근대문학의 시대적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관련학계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근대 기점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한다.

한국문학사에서 갑오개혁을 근대의 기점으로 규정한 연구는 1922년 발표된 안확의 『조선문학사』에서 비롯되어 이후 임화, 백철, 조연현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이혜우 2008, 53). 그러나 김윤식과 김현은 1973년 출간한 『한국문학사』에서 근대의 기점을 18세기 영·정조시대로 규정하였다. 즉 영·정조 시대를 조선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맹아가 형성된 시기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서구 문화의 이식론에 대한 기존 문학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반면 조동일은 1983년의 『한국문학통사』에서 본격적인 근대문학의 출발은 1919년 3.1운동 직후이며, 조선후기부터 3.1운동까지를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로 규정하였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9).

이 밖에도 근대문학의 기점에 대해서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1908> 발표 이후로 보는 견해, 이광수의 <무정, 1917> 발표 이후로 보는 견해, 동인지 <<창조, 1919>> 간행 이후로 보는 견해, 1930년대 모더니즘 시와 이상 문학의 등장 이후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학사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을 한국근대문학의 출발로 보고 있다. 근대문학의 종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을 근대문학의 종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일반적 견해를 참조하여, 본 연구는 근대문학의 시기를 갑오개혁이 발생했던 1894년부터 해방기인 1945년까지로 규정하고자 한다. 1894년은 한글이 공식적인 표기 체계로 선포된 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을 갖는다.

2) 장르적 범위

한국근대문학의 장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시, 소설 중심의 서양 장르에 국한해 근대문학을 접근한 임화, 백철, 조연현 등의 장르 구분에 비해 김윤식, 김현은 유럽적 장르만을 문학이라고 이해하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개방성을 표명했다(이혜우 2008, 53). 즉 현대 시, 현대 소설, 희곡, 평론 등 현대 문학의 장르만이 문학인 것은 아니며, 한국 내에서 생활하고 사고하면서, 살고 있는 곳의 모순을 언어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글은 한국문학의 내용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기, 서간, 담론, 기행문 등을 한국문학 속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한국문학의 맥락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김윤식, 김현, 1973. 33). 같은 맥락에

서 조동일은 소설, 수필, 희곡, 비평을 비롯해 대중문화로 제공된 야사, 야담, 재담, 만담 등 각종 산문 갈래 등도 문학 장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의 항일문학으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적극성을 보여준 민요는 민족의 지하방송과 같은 구실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항일투사 및 민족사의 영웅을 소개한 전기뿐만 아니라, 기사나 논설이 아니면서 특이한 수법을 사용해 사실전달 이상의 표현 효과를 얻은 언론문학, 최남선, 노자영, 김억, 이은상 등의 국내기행문, 독립 운동가들이 남긴 해외기행문, 서간 등을 장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조동일 2005, 24). 이와 같은 장르의 확장 전개에 대해 비판도 있지만,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주제가이드는 한국근대문학에 대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축된다는 점에서 최대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시, 소설, 수필, 희곡, 비평을 기본으로 하여 전기, 서간문, 기행문 등 망라적인 자료 구축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비평, 아동문학의 범위 내에서 한국근대문학을 다루고자 한다.

3) 지역적 범위

한국근대문학의 지역적 범위는 한반도로 규정할 수 없는 역사적 특수성이 있다. 즉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근대 문학인들의 활동 범위를 국내로 한정하기 어렵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 한인이 진출했고, 상해에는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다수의 한인들이 만주, 연해주 등으로 이주한 점을 감안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한국인이 발표한 문학적 성과는 한국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김홍규는 한국문학이란 한민족의 경험, 사고, 상상이 역사상의 각 단계마다의 생활방식과 문화적 조건에 상응하는 표현언어를 통하여 형상적으로 창조된 문학의 전체로 규정한 바 있다(김홍규 1998, 22). 따라서 반드시 한반도가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었더라도 그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한국문학으로 평가된다면 당연히 한국문학의 범주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강경애의 예만 보더라도 한국근대문학의 지역적 범위는 한반도만으로 국한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강경애는 식민지 하층민의 목소리를 공식 기록으로 끌어올린 대변자였으며, 항일 무장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고통과 정당성을 기록으로 증언하고 그것을 조선에 전함으로써, 시대정신의 최대치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근대소설사에서 최고의 리얼리즘 소설의 하나로 꼽히는 『인간문제』를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은 강경애가 간도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적 제한은 두지 않고 문학계에서 한국근대문학으로 평가된 작품은 모두 구축 대상의 범위로 볼 것이다.

2. 주제가이드의 개념 및 특성

가. 주제가이드의 개념

주제가이드는 학문분야별로 해당 도서관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관심주제의 이용자에 게 정보 찾기 혹은 연구 시작을 위한 출발점으로 연구가이드, 연구도구, 패스파인더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이미화 2010, 138). 즉 특정주제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는 초기의 연구자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소장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참고정보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주제가이드는 패스파인더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패스파인더가 소장 장서를 중심으로 해당 주제의 정보원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면 주제가이드는 도서관에 소장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된 개념이다(김진선 2015, 13). 즉 주제가이드의 개념은 인쇄자료 환경에 적용할 수 있었던 패스파인더의 개념에서 전자자료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대 진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제가이드의 개념은 1972년 Canfield가 서지, 색인, 초록, 청구번호 등을 기술한 인쇄물을 패스파인더(pathfinder)라고 칭하면서 처음 소개 되었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인터넷 기반의 주제가이드가 등장하면서 연구가이드(research guides), 연구도구(research tools), 전자도서관 가이드(electronic library guides or e-guides), 웨블리오그래피(webliographies), 주제포털(subject portals)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김수정 2012, 166).

이처럼 주제가이드는 여러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도서관협회의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도 주제가이드라는 용어보다는 주제안내판(subject guide)이라는 용어로 정의되어 있다. 즉 주제안내판(subject guide)을 “특정 주제에 관한 안내 장치로서 주제나 분류 기호를 기록한 안내판,...”으로 설명한 것이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313). 또한 일본도서관정보협회의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는 주제문헌안내라는 용어로 “어느 특정분야나 테마의 연구나 조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도서관인 등을 대상으로 연구법이나 연구동향, 기본문헌, 주요잡지, 이차자료, 문헌탐색법이나 도서관 이용법 등을 해설한 참고도서”로 규정되어 있다(일본도서관정보학회 용어사전편집위원회 2011, 473).

이상을 통해 패스파인더 개념이 도서관 자원에 대한 지도이며, 특정 주제에 흥미를 갖고 자료 검색을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한 자료안내 장치라는 점을 상기할 때 주제가이드의 개념과 패스파인더의 개념은 여전히 혼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주제가이드에 대한 공통된 개념은 특정주제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 혹은 초기 연구자를 위한 자관의 소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해당 도서

관에서 소장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안내하는 서비스도구라고 할 수 있다.

나. 주제가이드의 개선점

주제가이드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제가이드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Reeb & Gibbons의 연구(2004, 124)에 따르면 듀크대학교의 77%의 학생이 주제가이드를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로체스터대학교의 주제가이드 43개 중 300회 이상 이용된 것은 오직 5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정보기술 능력이 부족하여 주제가이드를 잘 활용하지 못하며, 학부생의 경우 학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해당 강의가 속한 학문주제를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맞춤형 정보를 편리하게 찾고자 하며, 도서관에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런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구글 등의 검색엔진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즉 실패 경험이 있는 주제가이드 보다는 한 번의 키워드로 모든 자료를 획득하는 검색엔진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제가이드 이용실태에 대한 Martin 등의 연구(2005, 192)에서도 주제가이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주제가이드가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니다(32.4%), 전혀 아니다(7.6%) 등 40%의 응답자가 주제가이드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국외의 사례조사와 더불어 이미화(2010, 138)의 연구를 통해서도 현행 주제가이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현재 상당수의 대학도서관이 도서관 자원, 학술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등의 자료를 주제별 혹은 학문별로 제공하는 주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제가이드에 포함된 내용이 학술DB나 전자저널로 한정되고, 학문주제에 따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학문적 주제의 경우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생보다는 연구자 중심으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주제가이드 구축시 요구되는 시간 투자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3.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특성

앞서 한국근대문학과 주제가이드의 개념, 특성, 개선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근대문학이라는 주제의 특수성과 주제가이드라는 서비스 도구의 특성을 결합한 최적의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서 다루어야 할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생산형태에 따른 원자료 및 파생자료, 자료형태에 따른 인쇄형태, 전자형태 등의 문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자료 및 파생자료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구축대상 자료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1894년부터 1945년의 자료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제가이드라는 특성상 관련 자료를 수집해 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근대문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연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대문학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원자료뿐만 아니라 그 원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다른 저자에 의해 생산된 파생자료까지를 구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원자료란 1894년에서 1945년 사이에 저자에 의해 직접 생산된 자료이며, 파생자료는 원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다른 저자에 의해 생산된 비평,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은 생산자와 생산 시기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료이면서 파생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933년 김상용의 작품 『영운 시집 독후감』은 김상용에게는 원자료이지만 모운숙에게는 파생자료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제는 1962년 김광섭이 쓴 『「렌의 애가」의 시인, 모운숙』은 모운숙의 파생자료에는 포함되지만 김광섭의 원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일작가의 작품이라도 1945년 이전이나 이후냐에 따라 원자료의 범위가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자료와 파생자료의 개념은 생산자와 생산시기의 두 가지 문제가 관련된 다소 복잡한 구분이 이기도 하다(<표 1>참조).

〈표 1〉 모운숙의 원작에 대한 파생자료의 일부

1933. 1	홍 구, 「1933년의 여류 작가의 군상」, 《삼천리》
1933. 2	안석주, 「라인 강반(江畔)의 유두희, 월암(月岩) 모운숙 씨」, 《조선일보》
1933. 10	김상용, 「영운 시집 독후감」, 《동아일보》
1934. 3	박귀송, 「전환기에 서 있는 모운숙」, 《시인문학》 3권 2호
1934. 5	이선희, 「렌의 애가를 읽고」, 《조광》
1938. 1	이현구, 「시인 모운숙론」, 《조선일보》
1948.	메 론, 「연설집: 모운숙 편」, 문화당
1962.	김광섭, 「렌의 애가」의 시인, 모운숙」, 《여원》 8권 10호
2005.	정경미, 「1930년대 여성시인 연구: 모운숙과 노천명의 시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 논문
2006. 11	김승구, 「모운숙 시에 나타난 여성과 민족의 관련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0
2007.	조규택, 「모운숙의 서사적 전생시와 오웬의 사실적 전생시 비교」, 《동서비교문학저널》 16
2007. 11	허혜경, 「모운숙의 초기 시의 출처: 사로지니 나이두(Sarojini Naidu)의 영향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3
2007. 12	김양선, 「근대 여성 문학의 형성 원리 연구」, 《어문연구》 136
2008.	김한식, 「여류 문인 모운숙과 왜곡된 모성—한국 문단의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 2」, 《겨레어문학》
2009. 6	이기성, 「국가와 청춘: 모운숙 시에 나타난 내셔널리즘과 사랑」, 《현대문학의 연구》 38

다음으로 원자료와 관련하여 생산지역이나 표현언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면 1930년대 식민지 현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근대소설사에서 최고의 리얼리즘 소설의 하나로 꼽히는 장편소설 『인간 문제』를 발표했

던 소설가 강경애도 간도출신이다. 조선 하층민들의 간도 망명 후 항일투쟁 과정을 증언한 강경애는 간도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당대의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표현언어와 관련하여서도 당시의 작품 중 일부는 한글과 일본어로 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말기 한국어 사용을 금지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생산지역이나 표현언어를 제한하지 않고, 통상 한국근대문학으로 평가되는 작품은 이 연구의 주제가이드 구축 대상에 포함시켰다.

나. 인쇄자료 및 전자자료

한국근대문학의 주제가이드 구축 대상과 관련하여 자료형태는 크게 인쇄형태, 전자형태, 기타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료의 경우 인쇄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부분은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태다.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도 소장 자료 중 귀중본, 유일본 등의 오래된 자료와,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자료 중 우선순위에 따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한국소설가협회에서 선정하고 저작권을 확보한 신문학100년 대표소설 654권의 책도 이미 원문이미지로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신문학 대표소설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광수라는 저자를 검색할 경우 이광수의 원자료와 관련자료 271건이 검색된다. 또한 파생자료는 원자료에 비해 전자형태가 많으며,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의 유통구조상 점점 전자형태의 자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는 한국근대문학의 형태는 인쇄자료와 전자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참고로 기타형태의 자료를 포함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가.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과정에서 실제로 데이터 구축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제가이드와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응답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일반대학생 집단,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중등학교 국어교사로 제한하였다. 일반이용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주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주제가이드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이해와 이용경험이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한국근대문학 역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근

대문학은 역사적 조건으로서의 근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개화 개몽시대, 일제 식민지시대 등의 시대배경과 맞물려 있다. 뿐만 아니라 1894년 한글이 공식적인 문자체제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한자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일본어 사용까지 겹치는 특이성이 존재한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특성상 『독립신문』, 『대한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대한신보』 등의 신문과 《창조》, 《소년》, 《청춘》, 《폐허》, 《개벽》, 《장미촌》 등의 잡지를 통해 작품이 발표되는 등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국근대문학의 특이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의미 있는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에 기반하여 실제 데이터 구축시 응답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어국문학 및 문학관련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고려하였으며, 사전조사 결과 작가, 문학동아리, 문학관 운영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과 중등학교 국어교사를 표집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대학생 210명, 대학원생 36명, 중등학교 국어교사 56명, 기타 5명으로 총 30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중등학교 국어교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였으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전남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등 두 개 대학의 강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중등학교 국어교사와 달리 두 개 대학으로 제한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화에 대한 다소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연구수행상의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힌다.

나. 연구문제

[연구문제 1]은 주제가이드의 인지여부와 이용경험이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잠정결론은 이용자가 주제가이드에 대해 먼저 인지해야만 동기가 부여 되고 실제 이용으로 이어져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가이드의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시점에서는 주제가이드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출발점으로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해, 유용성 확인, 지속적 이용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문제 1]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여부와 이용경험은 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지여부와 이용경험(유무, 횟수)은 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는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여 실제 주제가이드 구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문학에 대한 전문가 집단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개별 작품보다는 해당 주제를 다룬 군집형태의 자료를 필요로 할 것이다. 특정주제에 대한 시대상의 형상화 및 시대정신의 반영 등을 분석할 경우라면 국내자료 뿐만 아니라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 작품들을 연결하고, 묶고, 여러 작품들을 잠재적으로 결합시키는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즉 단편 작품을 개별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각각의 저작들을 기준으로 묶어 주는 작업은 주제가이드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별, 장르별, 시기별, 사조별로 구조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원자료와 파생자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원자료 중 더 선호하는 장르, 파생자료 중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형식 등에 대한 미세한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립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서 제공할 자료에 대한 이용자 요구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2>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생산형태(원자료, 파생자료), 자료유형(시, 소설, 수필 등), 생산지역(국내자료, 국외자료), 자료형태(인쇄형태, 전자형태, 기타형태), 구축형태(저자별, 장르별, 시기별, 사조별)에 대한 집단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가.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는 설문지이며, 구성 내용은 한국근대문학과, 주제가이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근대문학에 대해서는 자료의 생산형태(원자료, 파생자료), 자료유형(시, 소설, 수필 등), 생산지역(국내자료, 국외자료), 구축형태(저자

<표 2> 설문지 구성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문항
응답자 일반현황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4
주제가이드	- 인지도부 - 이용만족도 - 이용경험 유무 - 이용경험 횟수	4
한국근대문학	- 생산형태(원자료, 파생자료) - 자료유형(시, 소설, 수필, 비평 등) - 생산지역(국내 생산자료, 국외 생산자료) - 자료형태(인쇄형태, 전자형태, 기타형태) - 구축형태(저자별, 장르별, 시기별, 사조별)	5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 이용의향 - 홍보방안 - 기타의견	3
계		16

별, 장르별, 시기별, 사조별)에 대한 질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주제가이드에 대해서는 인지 여부, 이용경험, 이용만족도, 홍보방안 등에 대해 질문 하였다. 그리고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 대해서는 개발 후 이용의향을 질문하였다.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나. 분석방법

IMB SPSS 21.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 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등의 기초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는 추론은 가능한 배제하고 결과치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만 기술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가설의 채택 및 기각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연구문제의 확인에 초점을 두었다. 주제가이드에 대한 기존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 대한 연구는 전문한 상황에서 기존 연구 및 이론에 의한 정교한 가설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초연구로써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문제의 검증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1. 기초분석 결과

가. 응답자의 특성

조사대상 307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비는 남성 35.2%(106명), 여성 64.8%(198명)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는 10대 후반-20대 초반 186명(60.6%), 20대 후반 55명(18.0%), 30대 46명(14.9%), 40대 이상 20명(6.5%)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 분포는 대학생 210명(68%),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36명(11.7%), 국어교사 56명(18%)으로 대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대의 대학생 비율이 높으며, 특히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별		직업별		계
남성	108(35.2)	18~24세	186(60.6)	대학생	210(68.4)	307(100)
		25~29세	55(18.0)	대학원생	36(11.7)	
여성	199(64.8)	30~39세	46(14.9)	국어교사	56(18.2)	
		40세 이상	20(6.5)	기타	5(1.7)	

이상의 조사대상자 307명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지여부와 이용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이 응답자 중 13%만이 주제가이드에 대해 알고 있으며, 87%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인 15명만이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용경험이 있으며, 이용횟수도 대부분 3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제가이드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단위: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	
알고 있다	40(13)	있다	15(4.9)
모르고 있다.	267(87)	없다	292(95.1)
계	307(100.0)		

주제가이드의 이용경험자 15명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한 각 부분의 이용만족도는 <표 5>와 같다. 주제전문성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평균 4.14로 가장 높은 반면 인터페이스 식별성은 3.36으로 가장 낮았다.

<표 5> 주제가이드 이용만족도

구분	응답자(명)	만족도	표준편차
이용 편의성	14	3.86	0.86
주제 전문성	14	4.14	0.36
주제 최신성	14	3.50	0.85
주제 다양성	14	3.79	0.89
홈페이지 접근성	14	3.64	0.92
인터페이스 식별성	14	3.36	0.74

한국근대문학의 생산시기에 따른 원자료와 파생자료, 생산지역에 따른 국내생산과 국외생산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원자료(4.54)와 파생자료(4.12) 모두 중요도가 높았다. 따라서 1894년부터 1945년에 생산된 원자료 뿐만 아니라 파생자료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국내생산 4.08, 국외생산 3.77로 한국근대문학 중에서도 국내자료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한국근대문학 생산시기 및 생산지역 중요도

구분	응답자(명)	평균	표준편차
원자료(1894-1945년 생산 자료)	306	4.54	0.74
파생자료(원자료 기반의 파생 자료)	306	4.12	0.72
국내(한반도) 생산 자료	306	4.08	0.84
국외(중국, 일본, 러시아 등) 생산 자료	306	3.77	0.84

부가적으로 원자료와 파생자료에 대한 장르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원자료의 각 유형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시(4.46), 소설(4.5) 등이 높았으며, 수필(4.35), 희곡(4.07), 비평(4.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한국근대문학 원자료 장르별 중요도

구분	응답자(명)	평균	표준편차
시	304	4.46	0.74
소설	306	4.50	0.70
수필	306	4.35	0.76
희곡	304	4.07	0.88
평론	304	3.98	0.94
비평	305	4.02	0.92
신문연재시	306	3.96	0.90
신문연재소설	306	3.92	0.89
신문삽화	306	3.72	0.96
연설문, 일기, 서간, 기행 등의 자료	306	3.98	0.92
아동소설, 산문	304	3.68	0.97
독자감상문	302	3.25	0.99

반면 독자감상문(3.25)과 아동문학(3.68) 등의 중요도는 낮았다. 파생자료는 <표 8>과 같이 학술논문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단행본(4.14), 학위논문(4.08), 학회, 콜로키움 자료(4.00), 오픈엑세스 자료(3.37), 개인블로그 자료(2.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파생자료 중에서도 비공식 자료보다는 공식적으로 검증된 자료의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한국근대문학의 파생자료 중요도

구분	응답자(명)	평균	표준편차
학위논문(석박사)	307	4.08	0.81
학술논문	306	4.21	0.79
단행본	306	4.14	0.78
학회, 콜로키움 등의 자료	305	4.00	0.79
개인 블로그 자료	306	2.95	0.99
저자 홈페이지 자료	306	3.40	0.93
오픈 액세스 자료	306	3.37	0.94

자료형태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이 인쇄형태(4.30), 전자형태(4.24), 기타형태(3.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 기타자료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9> 한국근대문학 자료형태별 선호도

구분	응답자(명)	평균	표준편차
인쇄형태	305	4.30	0.79
전자형태(웹 DB, 전자저널, e-book 등)	306	4.24	0.82
기타형태(CD-ROM/DVD등 특수매체 형태)	305	3.35	1.06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구축형태에 대한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표 1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대별 구축에 대한 선호도가 4.49로 가장 높았으며, 장르별 구축(4.39)과 작가별 구축(4.12)도 높았다. 반면 사조별 구축(3.77)은 다른 항목에 비해 선호도가 낮았다.

<표 10>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구축형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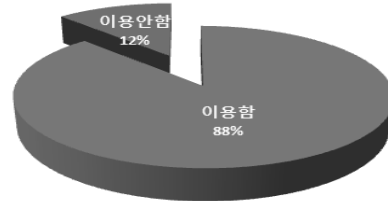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명)	평균	표준편차
작가별 구축	303	4.12	0.85
장르별 구축	304	4.39	0.71
시대별 구축	304	4.49	0.68
사조별 구축	302	3.77	0.91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용의향을 질문한 결과 <표 11>과 같이 전체 응답자 중 87.8%가 향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표 11>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이용의향

단위: 명(%)

구분	성별분포
이용함	267(87.8)
이용안함	37(12.2)
계	304(100.0)



2. 연구문제 검증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과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이용의도와 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문제 1]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연구가설 1]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경험은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주제가이드의 인지여부와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이용의향과는 관계가 있었다. 주제가이드에 대한 알고 있거나 인지도가 높을수록 향후 제

공될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았다. 그러나 이용경험과 이용의향 사이에는 관계가 없었다. 이용경험이 있는 모든 이용자가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이용의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자의 수가 15명에 불과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표 12〉 주제가이드 인지여부와 이용의향의 관계

단위: 명(%)

구 분		이용의향			$\chi^2(p)$
		있음	없음	전체	
주제가이드 인지여부	알고 있음	40(15)	0(0)	40(13)	6.383** (.004)
	모르고 있음	227(85)	37(100)	264(75)	
	전체	267(100)	37(100)	304(100)	
주제가이드 이용경험	알고 있음	15(6)	0(0)	15(5)	2.187 (.136)
	모르고 있음	252(94)	37(100)	289(95)	
	전체	267(100)	37(100)	304(100)	

검증기준 : * p<0.05, ** p<0.01

다음으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서 제공할 자료에 대한 이용자 요구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연구문제 2]의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생산형태(원자료, 파생자료), 자료유형(시, 소설, 수필 등), 생산지역(국내생산, 국외생산), 구축형태(저자별, 장르별, 시기별, 사조별), 자료형태(인쇄형태, 전자형태, 기타형태)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이 집단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원자료와 파생자료에 대한 검증 결과 1894년-1945년에 생산된 원자료의 중요도는 일반이용자 집단으로 규정한 대학생(4.47) 보다는 전문가 집단으로 규정한 대학원생(4.51) 및 교사(4.77)의 선호도가 높았다. 파생자료 역시 대학생(4.03), 대학원생(4.14), 교사(4.41)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13〉 한국근대문학 생산형태에 대한 집단별 선호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원자료(1894-1945년 생산자료)	대학생	208	4.47	0.74	3.731	.025*
	대학원생	35	4.51	0.82		
	교사	56	4.77	0.57		
파생자료(원자료 기반 후속자료)	대학생	208	4.03	0.86	4.710	.010* *
	대학원생	36	4.14	0.80		
	교사	56	4.41	0.71		

검증기준 : * p<0.05, ** p<0.01

다음으로 자료유형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원자료의 유형에 대한 집단별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표 14>와 같이 전체 12개의 유형 중 시(4.36, 4.43, 4.77), 소설(4.42, 4.44, 4.80), 희곡(3.94, 4.14, 4.43), 평론(3.80, 4.43, 4.29), 비평(3.83, 4.54, 4.32), 신문연재시(3.81, 4.22, 4.34), 신문연재소설(3.75, 4.23, 4.30), 신문삽화(3.61, 4.06, 3.89), 아동소설(3.55, 3.74, 4.05), 독자감상문(3.14, 3.46, 3.57) 등의

<표 14> 한국근대문학 자료유형(원자료)에 대한 집단별 선호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시	대학생	207	4.36	0.78	6.849	.001**
	대학원생	35	4.43	0.74		
	교사	56	4.77	0.50		
소설	대학생	208	4.42	0.72	7.035	.001**
	대학원생	36	4.44	0.73		
	교사	56	4.80	0.52		
수필	대학생	209	4.31	0.80	1.745	.177
	대학원생	35	4.31	0.76		
	교사	56	4.52	0.57		
희곡	대학생	207	3.94	0.87	7.280	.001**
	대학원생	35	4.14	0.91		
	교사	56	4.43	0.76		
평론	대학생	207	3.80	0.95	11.486	.000**
	대학원생	35	4.43	0.78		
	교사	56	4.29	0.85		
비평	대학생	208	3.83	0.92	14.202	.000**
	대학원생	35	4.54	0.70		
	교사	56	4.32	0.86		
신문연재시	대학생	209	3.81	0.90	9.791	.000*
	대학원생	36	4.22	0.83		
	교사	56	4.34	0.84		
신문연재소설	대학생	209	3.75	0.89	11.648	.000**
	대학원생	35	4.23	0.77		
	교사	56	4.30	0.83		
신문삽화	대학생	208	3.61	0.94	4.654	.010**
	대학원생	36	4.06	0.95		
	교사	56	3.89	0.98		
연설문, 일기, 서간 등	대학생	209	3.98	0.91	.261	.771
	대학원생	35	3.91	0.98		
	교사	56	4.05	0.98		
아동소설(아동관련작품)	대학생	208	3.55	0.96	6.288	.002**
	대학원생	34	3.74	0.86		
	교사	56	4.05	0.98		
독자감상문	대학생	205	3.14	0.98	5.175	.006**
	대학원생	35	3.46	0.85		
	교사	56	3.57	1.06		

검증기준 : * p<0.05, ** p<0.01

10개 유형에서 대학생, 대학원생, 교사 집단간에 중요도 차이가 발생했다. 따라서 수필, 연설문 등의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르에서 집단별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이용자 집단으로 규정한 대학생보다 전문가 집단으로 규정한 대학원생 및 교사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파생자료의 유형에서는 <표 15>와 같이 전체 7개 유형중 학술논문(4.12, 4.46, 4.34), 단행본(4.02, 4.54), 4.30), 저자 홈페이지 자료(3.34, 3.26, 3.66) 등 3가지 유형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발생했다. 이중 학술논문과 단행본은 대학생보다 대학원생 및 교사 집단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반면 저자 홈페이지 자료에 대해서는 대학원생 및 교사 집단보다 대학생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한국근대문학 자료유형(파생자료)에 대한 집단별 선호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학위논문	대학생	209	4.03	0.80	.919	.400
	대학원생	36	4.19	0.86		
	교사	56	4.14	0.84		
학술논문	대학생	209	4.12	0.80	3.893	.021*
	대학원생	35	4.46	0.66		
	교사	56	4.34	0.79		
단행본	대학생	209	4.02	0.78	8.799	.000**
	대학원생	35	4.54	0.56		
	교사	56	4.30	0.78		
학회, 콜로키움 등의 자료	대학생	207	3.97	0.80	.188	.829
	대학원생	36	4.06	0.71		
	교사	56	3.96	0.81		
개인블로그자료	대학생	209	2.90	1.04	1.759	.174
	대학원생	35	2.94	0.84		
	교사	56	3.18	0.90		
저자홈페이지자료	대학생	209	3.34	0.93	3.092	.047*
	대학원생	35	3.26	0.98		
	교사	56	3.66	0.84		
오픈엑세스자료	대학생	209	3.39	0.94	.265	.767
	대학원생	35	3.37	0.97		
	교사	56	3.29	0.85		

검증기준 : * p<0.05, ** p<0.01

다음으로 생산지역, 즉 국내자료와 국외자료에 대한 집단별 선호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이 국내자료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있는 반면

국외자료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즉 국내자료의 경우 대학생(3.99), 대학원생(4.19), 교사(4.29) 등으로 통계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한국근대문학 생산지역별 자료에 대한 집단별 선호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국내자료	대학생	208	3.99	0.84	3.283	.039*
	대학원생	36	4.19	0.82		
	교사	56	4.29	0.87		
국외자료	대학생	208	3.70	0.91	2.515	.083
	대학원생	36	4.03	0.97		
	교사	56	3.89	0.98		

검증기준 : * p<0.05, ** p<0.01

자료형태(인쇄형태, 전자형태, 기타형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7>과 같이 인쇄형태 및 기타형태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전자형태에 대해서는 집단별 선호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전자형태에서 교사(4.52), 대학원생(4.40), 대학생(4.12) 순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한국근대문학 자료형태에 대한 집단별 선호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인쇄형태	대학생	209	4.25	0.82	.892	.411
	대학원생	34	4.41	0.74		
	교사	56	4.36	0.70		
전자형태	대학생	209	4.12	0.86	6.260	.002**
	대학원생	35	4.40	0.65		
	교사	56	4.52	0.69		
기타형태	대학생	209	3.25	1.08	2.704	.069
	대학원생	34	3.59	0.78		
	교사	56	3.54	1.09		

검증기준 : * p<0.05, ** p<0.01

구축형태(작가별, 장르별, 시대별, 사조별)의 선호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8>과 같이 4가지 형태에 모두에서 집단별 선호도 차이가 발생했다. 즉 작가별 구축(3.96, 4.20, 4.63), 장르별 구축(4.36, 4.31, 4.63), 시대별 구축(4.43, 4.37, 4.80), 사조별 구축(3.66, 3.80, 4.16) 등으로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한국근대문학 자료구축형태에 대한 집단별 선호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작가별 구축	대학생	206	3.96	0.88	14.891	.000**
	대학원생	35	4.20	0.68		
	교사	56	4.63	0.59		
장르별 구축	대학생	206	4.36	0.72	3.577	.029*
	대학원생	36	4.31	0.79		
	교사	56	4.63	0.56		
시대별 구축	대학생	207	4.43	0.72	7.584	.001**
	대학원생	35	4.37	0.69		
	교사	56	4.80	0.44		
사조별 구축	대학생	205	3.66	0.91	6.929	.001**
	대학원생	35	3.80	0.93		
	교사	56	4.16	0.80		

검증기준 : * p<0.05, ** p<0.01

V. 결론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구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 이용자 요구조사이다. 조사내용의 핵심적 키워드는 주제가이드와 한국근대문학이다. 소수의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주제가이드는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 선호도에 따라 운영상의 성패가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한국근대문학은 문학작품으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근대라는 시점 및 한국역사의 특수한 경험과 맞물려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 시 이용자 요구의 반영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대학생,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중등학교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총 307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세 집단은 주제가이드 혹은 한국근대문학에 대해 최소한의 사전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표집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행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제가이드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약 13%로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며, 전체 응답자 중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이는 주제가이드에 대한 개념, 유용성 등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근대문학에 대해서는 자료의 생산형태에서는 원자료와 파생자료 모두 중요도가 높았으며, 생산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입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외자료 보다는 국내자료의 중요도가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자료유형에서도 원자료는 신문연재소설, 신문연재시, 아동소설, 독자감상문 등의 희귀자료 보다는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일반자료의 중요도가 높았다. 이는 응답자 구성이 대학생, 대학원생, 국어교사라는 점을 상기할 때 예상과 다른 결과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부분은 향후 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용의향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게 될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제가이드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과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이용의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문제 1]의 검증 결과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향후 제공될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았다. 이는 주제가이드 홍보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제가이드의 이용경험과 이용의향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경험이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수가 1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생산형태(원자료, 파생자료), 자료유형(시, 소설, 수필 등), 생산지역(국내자료, 해외자료), 자료형태(인쇄형태, 전자형태, 기타형태), 구축형태(저자별, 장르별, 시기별, 사조별)에 대한 집단별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생산형태의 선호도에서는 원자료와 파생자료 모두 중요도가 높았으며, 집단별로는 원자료와 파생자료 모두에서 대학생보다는 대학원생 및 국어교사의 중요도가 높았다. ②원자료의 유형별 중요도 평가 결과 전체 12개의 장르 중 시, 소설, 희곡, 평론, 비평, 신문연재시, 신문연재소설, 신문삽화, 아동소설, 독자감상문 등의 10개 장르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2개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집단별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모두 일반이용자료 규정한 대학생 보다는 전문가 집단으로 규정한 대학원생 및 교사 집단에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③파생자료의 유형별 중요도 평가 결과는 총 7개의 유형 중 학술논문, 단행본, 저자 홈페이지 자료 등 3가지 유형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발생했는데, 저자 홈페이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두 유형에서 대학생보다 대학원생 및 교사 집단의 중요도가 높았다. ④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결과적으로 한국근대문학은 원자료와 파생자료 모두 학업중에 있는 대학생보다는 연구단계에 있는 대학원생이나 교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 집단에 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생산지역별 자료의 중요도는 중국, 일본 등의 국외자료 보다는 한반도에서 생산된 국내

자료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즉 국내자료에 대해 대학원생과 교사 집단이 대학생보다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⑥이는 전문가 집단인 대학원생 및 교사 집단이 일반이용자인 대학생보다 국내자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대학원생 및 교사 집단이 대학생보다 한국근대문학에 대해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⑦구축형태에 대한 집단별 차이는 작가별, 장르별, 시대별, 사조별 구축 모두에서 발생하였으며, 자료형태의 선호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는 인쇄형태와 기타형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전자형태에서만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근대문학에 대해 대학원생 및 교사 집단이 대학생보다 월등히 높게 평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주제가이드의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매우 낮은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가이드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일수록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게 될 주제가이드의 이용의향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주제가이드의 개념, 유용성 등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주제가이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용하게 되고, 이용을 통해 유용성을 확인함으로써 재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생산지역에 대한 선호도 평가 결과 모든 집단에서 국외지역 보다 국내지역의 자료를 선호하며, 특히 대학생 보다는 대학원생 및 교사 집단의 선호도가 더 높다는 점이다. 즉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만주, 일본 등의 국외지역에서도 자료가 생산되었는데, 이러한 자료는 개인적 입수가 어렵기 때문에 주제가이드에 포함될 자료로써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응답자들은 국내자료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은 실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구축시 반드시 고려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료유형의 선호도 평가 결과 모든 집단에서 신문연재소설, 신문연재시, 신문삽화, 연설문 등의 입수경로가 어려운 자료 보다는 소설, 시, 수필 등의 일반적 자료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시대 정황상 신문지상이나 잡지를 통해 등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대문학에 비해 연재형태의 문학자료가 많으며, 당시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일반적인 자료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 역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 시 고려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구축형태와 관련하여 저자별, 장르별, 시대별, 사조별 구축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사조별 구축의 선호도가 낮은 점이다. 이는 저자별, 장르별, 시대별에 비해 구축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구축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원자료와 파생자료의 중요성 및 선호도가 높은 점이다. 이는 한국근대문학의 해당 시기를 1894년-194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시기에 생산된 작품만을 다루어야 하지만, 특정 작품에 대한 비평, 학위논문 등 관련 자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구축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영민. 2002. 『한국 현대문학사』. 서울: 민음사.
- 권영민. 2004.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수정. 2012.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4): 165-189.
- 김윤식, 김현. 1973. 『한국문학사』. 서울: 민음사.
- 김진선. 2015.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 가이드 개발 가이드라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김홍규. 1998. 『한국문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 김희정. 2008.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ASIST Proceedings 인용흐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2): 157-166.
- 노영희. 2014. 정책분야 주제 가이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63-92.
- 문화재청. 2009. 『(2009)근대문화유산 문학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 송주현, 김소륜. 2014. 수상한 인문학, 문학교육의 가능성: 서사교육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6): 463-492.
- 이미화. 2010. 강의별학술정보페이지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1): 137-163.
- 이혜우. 2009. 『한국근대문학사 기술방법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일본도서관정보학회 용어사전편집위원회. 2011.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대구: 태일사.
- 정재영. 2009.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제 운영방안 연구: 3개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119-136.
- 조동일. 2005. 『한국문학통사 1』. 서울: 지식산업사.
- 최지영. 2011. 『소설의 접근점 확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국립근대문학관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함연금, 박준식. 2008. 중국 대학도서관 가상참고서가의 구축현황과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147-167.
- Canfield, M. P. 1972. Library Pathfinders. *Drexel Library Quarterly*, 8(3), 287-300.
- Staley, S. M. 2007. Academic Subject Guides: A case Study of Use at San Jose' State Universit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8(2), 119-140.
- Baker, Sharon L. 1986. Overload, Browsers and Selecti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8: 315-329.
- Berman, Sanford. 1981. Reference, Readers and Fiction. *Reference Librarian*, 192: 45-53.
- Green, Rebecca. 1997. The role of relational structures in indexing for the humanities. *Information Service and Use*, 17(2-3): 85-100.
- Reeb, Brenda and Susan Gibbons. 2004. "Students, Librarians, and Subject Guides: Improving a Poor Rate of Return." *Libraries and the Academy*, 4(1): 123-130.
- Courtois, Martin P., Martha E. Higgins and Aditya. Kapur. 2005. "Was This Guide Helpful? Users' Perceptions of Subject Guides." *Reference Services Review*, 33(2): 188-189.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Dong-Il. 2005. *Linear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1*. Seoul: Jisik-anupsa.
- Choi, Ji Young. 2011. *A Study of Expanding Access Point for Fiction*. M. 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Chung, Jae-Young. 2009. "A Study on Operational Plan of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at Academic Libraries : Focus on Case Analysis of Three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119-136.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9. *Research report of Korean modern literature publication cataloging*. Dea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Japan Society of Library Science Editorial Committee for Glossary. 2011.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aegu: taeilsa.
- Kim, Heejung. 2008. "Citation Flow of the ASIST Proceedings Using Pathfinder

- Network Analysis.”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2): 157–166.
- Kim, Hong-Gyu. 1998. *Undering of Korean Literature*, Seoul: Minumsa.
- Kim, Jin Seon. 2015. *Department of Education Studies*. M. A.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Soojung. 2012. “A study on the Current of State of Online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4): 165–189.
- Kim, Yun-Sik and Hyun Kim. 1973.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Seoul: Minumsa.
- Kim, Yunsik. 2008.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3. *A Study of Feasibility Assessment of National Modern Literature Museum*.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Kwon, Young Min. 2002.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Seoul: Minumsa.
- Kwon, Young Min. 2004. *Dictiona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 Lee, Hae-Woo. 2009. *A Comparative Study on Description Methods in Korean Modern Library History*. Ph. D. diss., Mokwon University, Korea.
- Lee, Mi-Hwa. 2010.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Library Course Pages.”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1): 137–163.
- Noh, Younghee. 2009. “A Study on Developing the Policy Areas Subject Guid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63–92.
- Song, Ju-hyun. and So-ryun Kim. “The Possibility of the Mysterious Humanities and the Literature Education– Focused on the Narrative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6):463–492.
- Xian, Yan-Jin. and Joon-Shik Park. 2008. “On the Virtual Reference Shelves of Chinese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147–167.